儒敎界의 巴里長書事件과 3.1運動

南　　富　　熙

《目　次》

Ⅰ. 序　論
Ⅱ. 初期段階의 諸要因
1. 儒林의 位置와 金允植
2. 33人과 推進勢力
Ⅲ. 儒林合流와 長書
1. 內在意識의 變化
2. 原本과 發送本
3. 長書의 構成
Ⅳ. 結　論

Ⅰ. 序　　論

3·1運動은 抗日獨立을 위한 민족 역량을 집대성하고 나아가 臨時政府라고 하는 근대국가를 탄생시킴으로써 근대민족사의 좌표를 설정하고 민족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근대민족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데는 學界의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運動의 主動勢力이나 指導思想等의 문제점들은 아직도 定立된 단계는 아니며 論難과 硏究가 계속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지금까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당시 儒敎界에 대한 평가라고 하겠는데 이로 인해 3·1運動의 절대가치를 규정하는 데 엇갈린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 현실이다.

本稿는 先學들의 硏究成果를 바탕으로 당시 儒敎界가 직면했던 政治的 思想的 특수성에 注目하여 3·1運動에 관련된 儒敎界의 참가문제를 巴里長書事件을 중심으로 把握하고자 했다. 지금까지의 硏究成果를 살펴 본다면, 巴里長書事件은 그 전개과정이나 인명, 계보간의 함류등 사실 파악의 선을 넘지 못해 이 事件이 제시하는 민족사적인 의미와 3·1運動에서 차지하는 위치선정 문제는 모호한 입장이라고 하겠다.

硏究方向으로는 첫째, 長書事件과 관련되는 당시의 사회변화와 金允植 및 33人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儒林의 자세를 살펴보고 그것이 3·1運動에 부여하는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했다. 둘째, 長書事件을 전·후하여 전개되는 地域的 政治意識的인 특수성을 분석하여 3·1運動속에 차지하는 儒敎界의 역할을 究明해 봄과 동시에 근대민족사에 있어서 衛正斥邪思想을 조명해 보는 문제제기로 삼고자 했다. 이 問題는 구한말을 거쳐 日帝植民地下에서 전통사회 질서가 對內·外的인 도전과 대처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입장에서도 계속 硏究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Ⅱ. 初期段階의 諸要因

1. 儒林의 位置와 金允植

당시사회에서 儒林[1]의 위치는 3·1運動을 전후한 19C후반에서 20C初에 이르는 衛正斥邪思想의 시대적 배경속에서 그 개념이 파악 되어져야 할 것이다. 3·1運動 전까지 한국민족주의를 일별한다면 開港(1876)이후의 30년간은 저항민족의식의 고조기요, 제2차 한일협약(1905)은 전통이라는 자기보존력의 실천기이며 3·1運動(1919)은 근대적 창조력의 발휘기에 해당한다[2]고 보겠다. 이러한 近代民族史의 흐름은 크게 두가지 說로 區分 되겠는데 開化思想의 肯定論과 衛正斥邪思想의 肯定論으로 요약된다. 巴里長書事件을 定立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주장을 소개하면, 開化思想의 입장에서는 『조선말기에 있어서 國權恢復運動의 두개의 주류를 이룬 반일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은 그 바탕의 사상적 성격의 상위로 말미암아 병합에 이르기까지의 싯점에 있어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합류될 수 없었다』[3]는 것이고 『위정척사사상은 1907年 8月 조선군의 해산과 관련하여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4]고 했다. 결국 『한국에 있어서 근대화에의 구체적 비젼을 제시하고 세계사적 동시성을 획득하려던 운동은 개화운동 이외에는 없었다』[5]는 것이다.

衛正斥邪思想의 입장에서는 『3·1運動을 구현한 민족주의의 역사적 의미는 전통과 근대의 통합력에서 발견되며 전통과 근대의 통합이라는 종적인 개념은 횡적으로는 민족운동에서의 自主와 開化의 合一을 의미한다』[6]고 하고 있다. 또 『甲午更張 이후 개화파, 특히 온건개화파와 척사의 방향은 점차 역사의식속에 합치되고 있다』[7]고 하면서 『개화파의 개화가 외국의 도전이란 部外的 모순을 감당치 못하여 결국은 개화가 종말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국사에서 행방불명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개화개념의 재정립은 1860年代 이후 척사사상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의미가 첨가되어야 한다』[8]고 하고 있다. 즉, 역사의식의 재창조를 위정척사사상에서 구하고 있으며 이 사상을 민족적 주체성의 사상적 軸으로 위치 지우고 있다. 척사입장에서는 또 『한말의 위정척사론은 역사적인 변전에 의하여 설립되어 갔으며 단순한 배타적 보수적인 척사사상에

1) 儒林과 士林이란 用語는 廣義에서 그 語義가 同一하다. 조선조 官人體制에서의 社會的 機能의 一部를 담당하는 階層으로서의 槪念이 士林이라고 하고 있다.
崔昌圭《近代韓國政治思想史》一潮閣, 1972, p.190.
2) 同上, p.227.
3) 姜在彦《韓國의 開化思想》比峰出版社, 1981, p.364.
4) 同上, p.261.
5) 同上, p.263.
6) 崔昌圭,《近代韓國政治思想史》, 一潮閣, 1972, p.227.
7) 同上, p.177.
8) 同上, pp.185~6.

그치지 않고 그 자체내에 역사적인 전진성 즉 민족주의라는 근대적인 역사의식을 뚜렷이 지니고 있었다』[9]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3·1運動의 주체적 조건을 論하는 說을 간단히 살펴보면, 류청하씨는 『의병투쟁은 1910年 合併을 전후해서 유교적 명분론, 전근대적인 민족감정등으로 인하여 거의 소멸됨으로써 그 한계성을 노정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다른 발전적인 형태를 지향하게 됐다』면서 『의병투쟁이 고양된 환경속에서 주로 정치적, 문화적 개성을 띤 실력양성의 움직임이 애국계몽운동이었다』[10]고 했다. 그는 「1900年代 후반에 와서 애국계몽운동은 신민회활동으로 대표되며 또 애국계몽운동은 그 이후 1910年代의 민족운동의 새 흐름을 주도하여 3·1運動의 잠재적인 기반전제를 형성한다』[11]고 보았다. 반면 安秉直씨는 3.1運動의 사상적인 면에서 『개화사상, 애국문화계몽운동 및 의병투쟁에 의하여 고양된 근대적 의식의 성장등 일련의 변혁적 과정은 한국의 사회구조를 크게 변혁시켰다』면서 『애국계몽 및 의병투쟁의 전통을 계승한 독립운동가들은 해외운동을 직접 지도하는 한편 국내운동에 지주를 주었다』[12]고 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3.1運動까지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의식변화속에서 儒敎界는 온건파개화(改良的開化)에 속하는 金允植과 가장 먼저 관련을 맺고 있다. 金允植은 3·1運動직전, 그가 日本이 조직한 獨立不願書에 儒林代表로 날인했다는 문제[13]로 인해 자신의 종전 태도를 바꾸는 동시에 독립불원서는 儒敎界內에 파문을 던지게 된다. 金允植은 李容植과 함께 연명으로 獨立請願書[14]를 提出하기 전 崔南善과의 접촉과정에서 자기는 참가하지 않는 대신에 33人의 獨立宣言書를 孔子敎, 즉 儒敎를 확장한다는 구실로 儒林에서 날인하도록 하라[15]고 말하고 있다. 그 理由는 獨立宣言書를 각계에서 망라한다면 비밀이 탄로될 우려가 있다[16]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니고 있는 儒敎界에 대한 기본입장과는 달리 독립불원서에 그가 유림대표로 서명했다는 설이 유포됨으로 말미암아 儒林側, 특히 嶺南儒林에 충격을 주고 있다.

---

9) 洪淳昶, 《韓末의 民族思想》 探求堂, 82, p. 232.
10) 류청하, 〈3·1運動의 歷史的 性格〉 韓國近代民族運動史, 돌베개, 1980.
11) 同上.
12) 安秉直 〈3·1運動에 參加한 社會階層과 그 思想〉 歷史學報, 41輯, 1969.
13) 金允植의 날인설은 이어 高宗독살설과 함께 國民大會의 이름으로 布告되는 檄文으로 구체화되면서 전국에 流布된다. 그 檄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高警 第5971號(1919. 3. 6), 獨立運動에 關한 件 第7報, 《韓國民族運動史料》, 3·1運動 篇, 其三, 國會圖書館 編, 1979, p. 20 參照.
②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I, 原書房, 昭和 42, 6, pp. 305~308 參照.
14) ① 高警 第9476號(1919. 3. 30) 獨立運動에 關한 件, 第31報 및 高警 第9615號(1919. 4. 1) 《韓國民族運動史料》 3·1運動篇, 其三, 國會圖書館編, 1979, pp. 139~140.
② 金允植 《續陰晴史》 下, 韓國史料叢書 第 11, 國史編纂委員會編, 60, p. 493, 1919年 3月 28日條.
③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1946, 서울新聞社出版局, pp. 143~144.
15) 《韓國獨立運動史》 愛國同志援護會編, 1956, p. 96.
金允植은 이때 獨立의 선언에는 반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6) 同上.

儒林側은 이 문제를 계기로 시국의 흐름과 그들의 입장을 진단하고 있음을 볼 수있다. 영남유림의 領袖였던 郭鍾錫 주변에는 서울의 門人 尹忠夏가 내려와, 대략의 일들을 보고하고 선생이 나서줄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郭鍾錫도 이를 응락[17]함으로써 그들이 獨立運動을 거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日本이 우리民族이 併合을 원한다는 文書를 조작하는데 이에 金允植이 儒林代表로 서명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儒林도 俛宇先生을 대표로 삼아 그 뜻을 전해야 한다[18]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물론 儒林들이 참가하게 된 動機를 여러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겠지만 조직적인 운동을 유발시킨 1次的인 원인은 이 事件으로부터 찾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金允植은 3月 28日 李容植과 함께 日本을 대상으로 獨立請願書를 제출한다. 그는 이의 제출배경에 대해,

『又於近日 有獨立不願書之傳布者, 以余爲儒林代表 捺章之說 此又全無根據 而萬口傳播 登於國民布告書中(中略) 無證無據 百口難明 遂決計以 獨立請願』[19]

이라 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動因이 獨立不願書임을 알 수 있다.

請願書를 제출한 다음날인 3月 29日 그는 檢事인 河村에게 訊問을 받는다. 이 자리에서 河村은 만약 독립이 승인되면 韓國이 독립에 관한 일들을 능히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는 이에 대해,

『待國民大會 從公議決定 非余一人之 所可斷言也 傳云 十室之邑 必有忠信 集二千萬人之智慮 豈無獨立之道乎』[20]

라고 한다. 韓國이 獨立한 다음 그 政治體制構成에 있어 종래의 封建王朝로 규정하기보다 國民大會를 열어야 하고 그에 의해 결정되는 公議에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6月 7日의 訊問에서도 獨立이 승인된다면 公議의 立場으로는,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요(此在國人公議 不可預知), 個人의 立場으로는 복벽을 원한다(然若果復辟 豈不善乎)[21]고 했다. 이는 個人의 입장이 復辟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公議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시대조류의 적응과정을 뜻한다고 해석된다. 그가 확고한 근대시민사상을 지녔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적어도 主權在民意識이 싹트고 있는 과도기적 현상임을 엿볼수 있다. 3·1運動직후 수립되는 公和政體의 臨時政府中 2個處의 臨政에 그가 내각요인으로 등

17) 《俛宇先生年譜》 1956, 6, 慶南 居昌郡 加祚面 源泉 茶川書堂, 俛宇先生年譜發刊所, 初刊本 卷 6, 己未年 正月條. 『自京來報其槩而請先生 作主, 先生旣諾』.
18) ① 同上 參照.
② 金 榥의 《記巴里郵書事》에는 尹忠夏의 訪問이 陰正月 19日(陽 2月 19日)로 記錄되어 있다.
19) 金允植 《續陰晴史》 下, 韓國史料叢書 第 11, 國史編纂委員會 編, p.499, 1919年 6月 7日條.
이밖에 그는 韓城臨時政府樹立에 참여했던 李奎甲등과 만나 영향을 받기도 한다.
李炳憲 編著 《3·1運動秘史》 時事時報社, 1959, p.864 參照.
20) 金允植 《續陰晴史》 下, 韓國史料叢書 第 11, 國史編纂委員會 編, pp.493~494. 1919年 3月 29日條.
21) 同上, 6月 7日條.

장[22]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문제일 것이다.

以上으로 보아 金允植은 3·1運動에서 사태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대응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請願書를 제출한 후 外國記者와의 회견[23]에서나 『신중하면서도 품위있는 글』[24]이라는 Mckenzie의 평가에서도 사회변화에 적응해 가는 一面이 파악된다고 하겠다. 그가 3·1運動에 參加하는 한계성은 독립의 절대이념보다는 이같이 社會變化에 따른 沒我的 結果主義라는 데서 찾아진다고 하겠으며 政治思想的 前近代性에서 빚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金允植의 參加로 인해 儒敎界에서 일으키는 반응을 보면, 日帝側은 『金允植의 청원서 제출로 말미암아 귀족 및 유림의 耆老中 이것을 따라 不逞輩의 망동을 조성하려는 경향이 싹트게 됐다』[25]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日帝側이 보는만큼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은 찾아 볼 수 없다. 儒敎界자체의 기록미비에서도 그 理由가 있겠지만 忠淸道一部地方 이외에는 이러한 영향력이 보이지 않는다.[26]

지금까지 儒林側과 金允植과의 관계와 金允植의 청원서에 관련된 몇가지 문제를 살펴 보았다. 그는 前近代性보다 당시 社會變化에 적응하는 近代意識을 지니고 있는 反面 獨立理念에 對한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데는 소극적인 한계를 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시에 儒林과 함께 獨立不願書라는 共通的인 내재원인을 지님으로써 儒林側에 미치는 背景으로 把握되고 있다.

2. 33人과 儒林推進勢力

民族代表라고 불리는 33人이 3·1運動에서 차지하는 지도적 역할에 대해선 本稿에서 論할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까지 33人과 儒林들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1運動에서 儒林側의 기본입장이 모호해지고 있는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정립해 보고자 하는데도 뜻이 있지만 그보다 儒林側에서 33人과의 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변화와 그것이 3·1運動에 반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보았다.

종래 兩側의 관계는 33人側이 儒林側에 獨立宣言書의 서명을 위해 事前에 通告했지

22) 金允植은 朝鮮民國臨時政府에서는 內務卿으로, 大韓民間政府에서는 外務長官으로 등장하고 있다.

23) 高警 第 10876號(1919. 4.10) 獨立運動에 關한 件, 第43報.
金允植은 이날 美 사아틀 포스트인테리켄자社 특파통신원인 아린슈피이에게 독립가능성에대한 답변에서 『獨立이 될지 안될지 판명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24) Frederick Arthur Mckenzie著, 《韓國의 獨立運動, Korea's Fight for Freedom》 李光麟譯, 一潮閣, 1969, pp.183~184.

25) 《獨立運動史資料集》 第6輯, 3·1運動史 資料集,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73, pp.895~900 參照.

26) 忠南 公州郡 正安面 시위(4月 1日~3日)는 이곳 유림인 李綺漢, 李秉億등이 주동인물이었는데 金允植의 청원서와 관련이 있다는 日警의 보고와 함께 注目을 받는다.
《獨立運動史》 第3卷, 3·1運動史 下,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71, p.161 參照.

만 儒林側이 이를 거부했거나 미온적으로 받아들였다는 說[27]이 정당화 되어 왔다. 이후 사전통고설을 부인하면서 유림측이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王朝復古에 관한 언급이 없는 宣言書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主張[28]으로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의 說은 당시의 관계자료등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확히 밝히는 데는 충분치 못했음이 지적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림측의 당시 조직체계등을 미루어 贊·否의 결정 이전에 通告와 전달 channel 자체까지 일관성이 없었다는 데서도 이점에 대한 論難의 여지가 있다고 보겠다.

사전통고문제등을 일으킨 원인은 金法麟이 1946年 3月 그의 스승 韓龍雲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공개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김법린의 말에 따르면, 韓龍雲은 事前에 嶺南儒林의 領袖인 郭鍾錫을 만났고 그로부터 독립선언서 서명에 대한 快諾의 回報를 얻었으나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서명되지 않았다[29]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33人이 儒林側에 사전통고 하였다는 근거를 찾아보면, 그 하나가 1946年 2月 발간된 金相德의 《朝鮮獨立運動史》인데 이에 의하면 33人中 유림대표로 金昌淑이 連署코자 했으니 3月 1日까지 上京치 못해 누락됐다[30]는 記錄이다. 다른 하나는 金昌淑이 1919年 2月 서울의 同志인 成泰英[31]으로부터 받은 서신내용중 上京하여 連名하라는 것이 언급됐으나 자신은 親患때문에 上京치 못했다는, 金相德의 記錄과 共通되는[32] 것이다.

이러한 記錄들을 엄밀히 검토해 보면 내용중 연락방법이 한결같이 제3者를 통한 간접적이고 그 대상도 뚜렷하지 못하다는 점등, 신빙성이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 金法麟의 말을 살펴보면, 33人이 宣言書를 모의하는 과정에서 儒林側에 대한 사전교섭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언급조차 없다가 韓龍雲이 나중에사 그 말을 弟子에게 전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郭鍾錫側의 기록에는 이 事實을 찾아 볼 수 없다[33]는 것이다. 당시 郭鍾錫을 모시고 있었던 金 榥(重齋)의 日記인 《記巴里憩書事》[34]에도 이에 관

27) 代表的인 것을 紹介하면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韓國獨立運動史》 2, 國史編纂委員會, 1966, p.152. p.169.
② 《韓國民族運動史》 趙芝薰,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4, p.647.
28) 許善道 〈3·1運動과 儒敎界〉, 3·1運動 50周年 紀念論集, 東亞日報社, 1969.
29) 《新天地》 1946年 3月號 第1卷 2號, pp.75~76.
30) 金相德(北丘山人) 《朝鮮獨立運動史》, 朝鮮出版文化株式會社, 1946, 2, p.21.
31) 구한말 애국적인 地主. 長書運動의 在京人物中 한사람. 《金昌淑》 心山思想研究會編, 한길사, 1981, p.191 參照.
32) 金昌淑 《心山遺稿》 卷 5, 雜記, 豐翁 73年回想記 上編, 韓國史料叢書 第18, 國史編纂委員會, 1973.
『己未二月 得碧棲成丈泰英自京來書 書云光武因山 在於三月二日 國人士擬於其時擧某事 機已熟矣 子可即日入京 無貽失機不及悔也 翁於其時以親癠 不敢告遠 至晦間始入京 成丈曰 子來何遲以三月一日 將發表朝鮮獨立宣言書 子已失聯書之機 可恨也』
33) 《俛宇集》 《俛宇先生年譜》에는 韓龍雲의 訪問記事가 보이지 않는다.
34) 《記巴里憩書事》는 金昌淑의 族叔이자 長書事件 및 2차 유림단사건에도 참여했던 金 榥(金佑林)이 당시 상황을 日記體로 記錄한 것인데 許善道씨에 의해 그 一部가 公開됐다. 여기서도 당시 郭鍾錫을 찾아온 방문객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있으나 韓龍雲의 방문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筆者가 金 榥의 長子 金昌鎬씨(63, 慶南山淸郡新等面坪地里勿山, 舊內塘)를 방문했을 때 金 榥의 관계활동 등에 대한 도움말을 받은 바 있다. 현재 金 榥의 文集은 가칭 《益朋堂叢鈔》라 하여 目錄만도 전, 후 2冊이 作成中이며 그 발간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1983. 8) 《益朋堂叢鈔》의 目錄에는 《記巴里憩書事》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고 金昌鎬씨는 父

한 記事가 없을 뿐 아니라 그가 직접 한용운의 방문을 부인하고 있음도 언급[35]된 바 있다.

이와 함께 郭鍾錫側의 당시 움직임과 韓龍雲이 했다는 말을 비교해 볼 때 상반되는 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겠다. 첫째, 사전교섭이 있었고 곽종석도 33人과의 거사를 快諾했다고 한다면 앞서 서울의 門下生들과 거사를 계획했던 유림측으로서는 오히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따라서 그 뜻을 전하는 방법은 서울문하생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곽종석은 高宗因山 拜觀次 앞서 金 榥과 그의 姪인 郭 瀋(郭大淵)을 上京시키는데 그들은 2月 27日 서울에 도착한다. 그런데도 그들의 활동에서 33人과의 접촉에 관한 일들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서울에서 尹忠夏나 金昌淑을 만나 儒林들의 거사만 도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心山遺稿》나 《朝鮮獨立運動史》의 기록은 모두 김창숙과 재경유림에 관계되는 것이라 하겠는데 巴里長書事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김창숙은 성태영으로부터 서신을 받고 곧장 上京치는 못하지만 2月 28日 上京하고 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成泰英을 비롯하여, 金丁鎬·俞鎭泰등 在京儒林들과 거사를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33人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그의 당시 기록을 보면,

> 『其翌即三月一日也(中略) 發表獨立宣言書(中略) 翁讀其書而痛哭(中略) 翁曰 今儒敎人之集于京中者殆數十萬人(中略) 與孫秉熙等 互相呼應 派遣代表於巴里平和會 訴請於列國代表』[36]

라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모순점이 드러나는데 그가 독립선언서를 읽고 통곡했다는 것은 33人의 거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은 물론이지만 사전에 이러한 중대성을 모르고 있다가 뜻밖에 충격을 받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김창숙등은 또 33人측의 해외연결운동[37]조차 모르고 있는데 김창숙등은 33人이 국내운동만 전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유림은 국제운동에 앞장서자[38]고 결의하고 있다. 이는 33人측과 유림측이 사전에 아무런 교섭을 가지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김창숙이 받았다는 서신에서 연서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믿기 어려운 사실로 보여진다. 동시에 당시 유림대표격으로 그가 대두됐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설사 그가 대두됐다 하더라도 郭鍾錫에게 전하는 중간역할이 아닌가 생각된다.

親의 日記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35) 許善道 〈3·1運動과 儒敎界〉 3·1運動 50周年 紀念論集, 東亞日報社, 1969.

36) 金昌淑 《心山遺稿》 卷 5, 雜記, 蹩翁 73年 回想記 上編, 韓國史料叢書 第 18, 國史編纂委員會, 1973.

37) 33人측은 3月 1日 독립선언서와 탄원서를 金智煥→玄 楯(上海)등을 통해 美大統領과 巴里講和會議에 발송했다.
3·1運動에 關한 各地判決文中 高等法院의 관할재판소 지정결의서 및 京城覆審法院판결문. 《韓國獨立運動史》 2, 國史編纂委員會 1966, pp. 1016~101. pp. 1052~1053 參照.

38) 金昌淑 《心山遺稿》 卷 5, 雜記, 蹩翁 73年 回想記 上編, 韓國史料叢書 第 18, 國史編纂委員會, 1973.

이상으로 보아 33인측이나 한용운이 유림측에 통고했다는 사실은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金昌淑과 그의 동지들이 33人의 獨立宣言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어서 巴里長書運動을 구체화 시키고 있음을 보더라도 사전에 33인들과 연락내지 교섭이 있었다고 할 때 獨立宣言書에 參與하는데 同意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長書준비 과정에서 孫秉熙등과 함께 전개하자[39]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여기에서 儒林內의 變化가 발견된다고 하겠는데 高宗因山의 拜覲次 상경한 儒林들이 33人의 宣言書와 3·1運動발발과 함께 또다시 자극을 받아 앞서의 計劃을 集約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金允植과 獨立不願書의 관계에서 儒林側은 그 잠재력이 형성됐다고 한다면 33人과의 관계에서 그 추진세력이 등장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Ⅲ. 儒林合流와 長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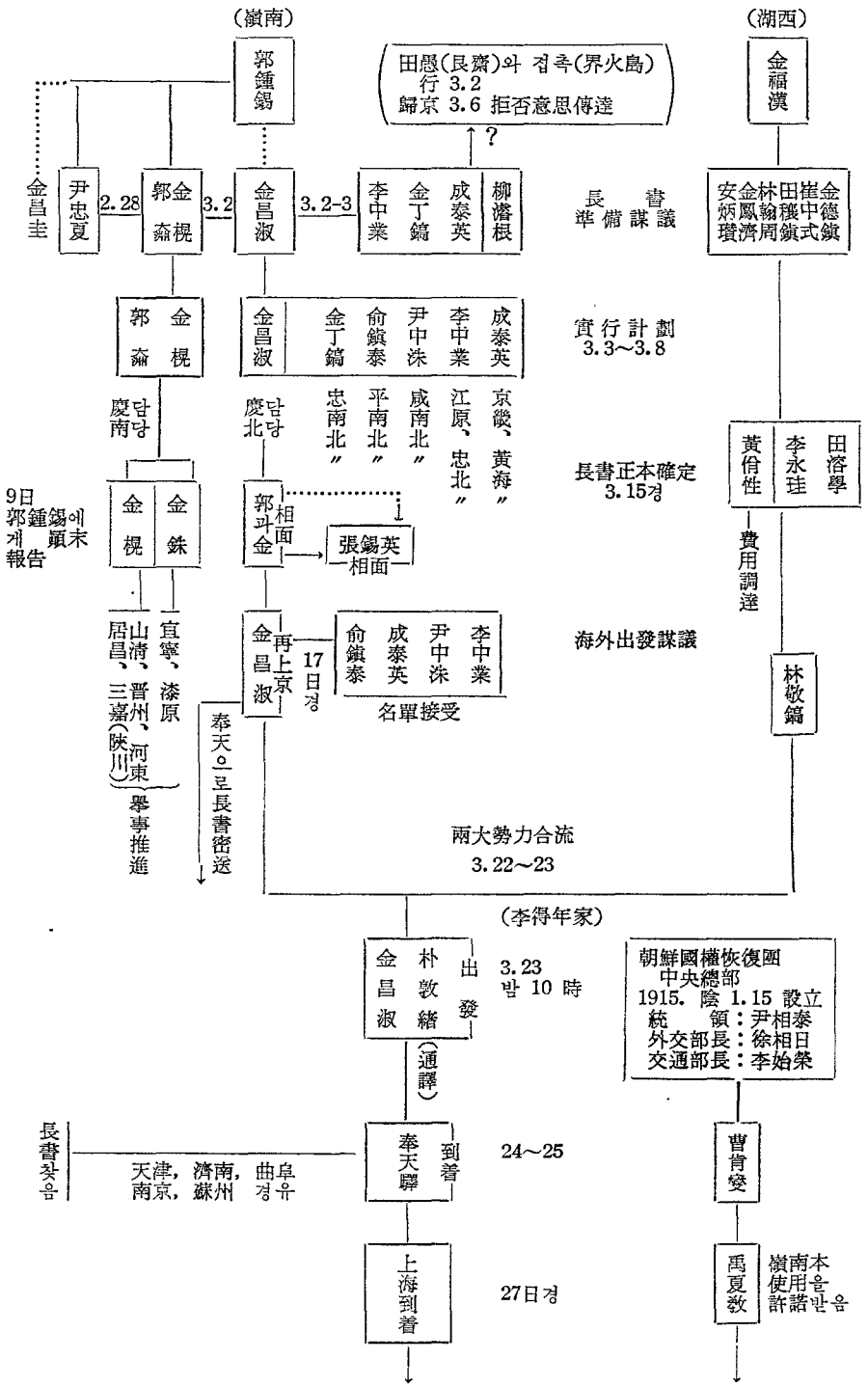
1. 內在意識의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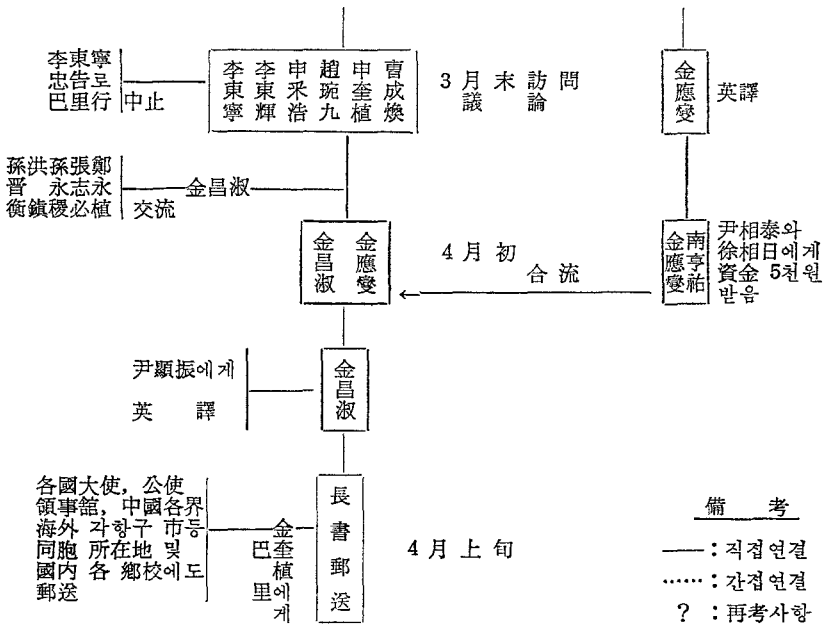
巴里長書事件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本章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를 중심으로 장서운동의 절차나 과정에 관심을 가져 보았지만 長書를 둘러싼 儒林들의 의식변화와 그것이 3·1運動에 합류하는 성격파악에 중점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했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長書준비 과정에서 사전에 재경儒林을 규합[40]했다는 점, 실행근거지를 서울에 두고 전국을 운동대상 지역으로 삼았다는 점, 각지방을 가능한 한 연고자가 책임졌다는 점, 위험에 대비하여 文書等을 먼저 海外로 보냈다는 점등이 주목된다. 嶺南과 湖西儒林은 3月 22日과 23日사이 그 뜻을 같이 하면서 서울에서 合流한다. 이 合流는 양대세력의 領袖끼리 합의된, 위에서 부터의 결정이 아니라 실무자들간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양대세력이 모아진 자리에서 金昌淑이 한번 보자 간담을 토로해서 엣벗과 다름없었다[42]고 한 것은 그들이 스승의 사전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 合流한 것이 아님을 말한다. 그들은 스스로 全權代表라고 말하면서 뜻을 합하기로 하고 이어서 연서순서를 定한다.[43] 가장 중요한 2個長書中의 선택

39) 註 36參照.
40) 당시 在京儒林은 郭鍾錫과 金昌淑과의 인맥으로 형성된 儒林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1) 表 1은《俛宇集》《俛宇先生年譜》《記巴里懇書事》《心山遺稿》《志山集》《梅泉野錄》《騎驢隨筆》《韓國痛史》《韓國獨立運動之血史》《高等警察要史》및 그밖에 현재까지 공개된 日側記錄, 報告, 그리고 관계論文(許善道씨의 3,1運動과 儒敎界等)등을 종합,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個人著述別로 一部記錄의 날짜와 지역, 인맥등에서 相異한 점이 많았으나 주로 사건발생에 관련하여 체계화 시키는데 주력했다.
42) 金昌淑《心山遺稿》卷 5, 雜記, 躉翁 73年 回想記 上編, 韓國史料叢書 第 18, 國史編纂委員會, 1973.
『一見傾肝膽 無異於舊要』
43) 連署순서는 첫번째로 郭鍾錫, 두번째로 金福漢 順으로 定한다. 同上參照.

表 1)　　巴 里 長 書 進 行 圖[41]





문제에서도,

『可取兩書 精加檢討 從公議採其一何如 咸曰善 遂取兩書 與諸公同爲檢討』[44]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직접 결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領袖의 절대적인 결정하에서 움직이던 유림집단의 향촌지배적이고 전통적인 성격이 3·1運動의 현장에서 變化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儒學史的인 측면에서 양대세력이 수백년동안 學派와 黨論을 달리해 온 立場[45]이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는 타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合流를 긴 세월에 걸쳐서 思想과 理念을 좁힌 통일로 보기 보다는 民族的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지역적 혹은 현실적 단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合流가 儒林內部로 볼 때 그들의 괴리된 절대가치관을 융화시키는 公式的인 접촉임과 동시에 이 합류를 계기로 3·1運動에서 儒敎界內의 신진세력이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양대유림세력은 이같이 단일화되고 이로써 金昌淑은 日警의 눈을 피해 龍山驛을 출발하는데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이때가 3月 23日 밤 10시경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유림세력은 이어 上海에서 비밀결사조직인 朝鮮國權恢復團 中央總部와 연합하고 있다. 이는 日帝의 記錄[46]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보면 恢復團은 4月 상순경

44) 金昌淑《心山遺稿》卷 5, 雜記, 蠶翁 73年 回想記 上編. 韓國史料叢書 第 18, 國史編纂委員會, 1973.
45) 당시 嶺南側은 南人系統으로 學派로는 退溪派(主理立場), 黨論으로는 東人에 屬하고 있었다. 湖西側은 學派로는 栗谷派(主氣立場), 黨論으론 西人에 屬했다.
46) 《高等警察要史》 高大民族文化研究所, 複刊本, 1967, pp. 183~184.

단원 曹肯燮의 집필로 된 獨立請願書草案을 巴里講和會議에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회복단의 統領 尹相泰는 禹夏敎를 長書연명 儒林인 張錫英에게 보내 嶺南本의 사용을 허락받는다. 그리고 金應燮은 이를 英文으로 번역하여 南亨祐와 함께 上海로 가지고 가서 그곳의 金昌淑과 접촉하게 된다. 金昌淑은 上海에서 金應燮과 만난 직후 李東寧의 충고를 받아들여 巴里行을 중단하고 당시 우리나라 대표로 巴里에 체류중이던 金奎植에게 長書를 우송한다.

儒林側이 회복단과 합세할 수 있는 배경은 이 記錄이외에도 다음 몇가지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長書연명자에 회복단의 단원[47]이 포함되어 있고 회복단이 嶺南儒林을 기반으로 형성[48]됐으며 그 獨立運動이 주로 嶺南, 釜山地方을 무대로 전개[49]됐고 上海等 海外에서 金昌淑과 함께 團員들이 臨時政府活動에 관계[50]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뒷받침 되고 있다. 金昌淑도 南亨祐, 金應燮 등 上海에서 연합한 國權恢復團員과는 國內에 있을 때부터 사귀어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上海에서 함께 北京으로 피신했을때 日本에 歸順[51]했기 때문에 後에 儒林側의 記錄에서는 이 事實을 빼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秘密結社組織과의 聯合은 長書儒林의 세력기반이 넓혀지고 있었다는 것과 3·1運動의 參加를 海外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말한다.

제 2차 유림단사건도 여기에서 기인되고 있는데 1차 유림단사건인 이 長書運動은 獨立軍양성이라는 2차 유림단사건으로 발전하면서 자금모집을 위해 유림들이 다시 합류하는데 이같은 金昌淑등의 海外연결이 그 발판을 이루고 있다. 義烈團員 羅錫疇의 東洋拓殖會社 폭탄투척은 2차 유림단사건의 무기, 자금지원등이라는 배경하에서 전개[52]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長書運動에 참여하고 있는 儒林들이 行動의 일치와는 달리 內在意識에 있어서는 지역별, 集團別로 서로 다르다는 점이 지적된다. 먼저 金福漢이 作成한 湖西本의 主旨를 보면,

> 『歷陳倭夷前後棄信背約之罪 又言國君國母被弑之變 又言國內萬姓憤讐之情, 終言復我疆土興我李氏宗社之意』[53]

라 하고 있다. 그를 중심한 湖西의 많은 참여인물들이 구한말 義兵將출신[54]이었다는

47) 禹夏敎와 張錫英등인데 張錫英은 嶺南儒林의 連名者이기도 하며 嶺南側長書의 제2책임자였다.
48) 慶北達城郡壽城面安逸庵서 1915年 1月 15日 結成. 註 46參照.
49) 恢復團은 釜山의 白山商會 安熙濟와도 관련을 갖고 있다.《獨立運動史》제 3권, 3·1運動史, 下,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71年版 및 1983年版, pp. 176~177 參照.
50) 金昌淑은 1925年 大韓民國議政院 慶南北 代議員으로 활동했다.《心山遺稿》卷 5, 雜記, 豐翁 73年 回想記 中編, 韓國史料叢書 第 18, 國史編纂委員會, 1973, 參照.
51) 同上.
52) 同上.
53)《志山集》卷 15(志山集附錄중 年譜) 1919年 3月條 參照.
湖西本은 現存하지 않는다. 남은 것중 하나는 金福漢의 次子 金魯東이 보관하다 잃어버리고 또 一本은 제자인 金溶彧이 보관중 해방전에 신변이 위험하여 소각해 버렸다고 한다.《獨立運動史》卷 3, 3·1運動史 下,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71年版 및 1983年版, p. 137 參照.
54)《騎驢隨筆》·《梅泉野錄》·《韓國痛史》·《韓國獨立運動之血史》등에 보면, 湖西儒林들의 義兵

점에서 王朝復古를 강렬히 염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金福漢은 후에 嶺南儒林과의 合流사실을 알고 그 서명順에 대해서는,

『發書後 有言參名先後者 先生曰 只盡在我之誠 豈爭名先後 雖最末固所甘心也』[55]

라면서 상관치 않고 있다. 그러나 長書內容에 대해서는 意見을 달리하고 있다. 그는 嶺南本의 내용중에서 列國代表들을 大明大化 혹은 大仁武등으로 비유한데 대해선 찬성하지 않는다. (但書中辭意如大明大化 大仁武等語 有化商量者而已發難訂恨不用湖本也)[56]고 하고 있다. 《記巴里憩書事》에도 金福漢의 이같은 態度를 볼 수 있는데,

『金志山福漢於送書後 始得見原文 歎賞不已 而以其中 大明大化 大仁武等語 下得太重非所施今日夷狄之雄者爲病云』[57]

이라는 것으로 보아 金福漢이 당시 巴里講和會議의 列國을 夷狄이라 칭할만큼 排他性이 강함을 볼 수 있다.

반면 郭鍾錫의 嶺南本은 金福漢이 지니고 있는 排他的 性格에서 어느정도 탈피한 採西觀을 보이고 있다. 嶺南本은 우리나라는 世界의 一員(我國固天下萬邦之一也)[58]이라면서

『惟諸大位 憐而察之益恢公判之議』[59]

라 하고 있다. 郭鍾錫은 乙未事變이나 俄館播遷 그리고 乙巳保護條約때 義兵戰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이때 儒生으로 國辱之時에 죽을 곳을 찾는 것은 매一般이나 전체적인 정세를 不顧하고 動한다는 것은 意義가 없다[60]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때 賣國賊臣의 처단과 列國公館에 대해 호소를 원한다는 上疏[61]의 방법에 그치고 있다. 즉 日本과의 정면대결로는 승산이 없음을 알았고 列國을 通한 外交的 방법으로 救國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하지만 그 行爲의 主體를 어디까지나 皇室로 보고 上疏라는 形式을 취할 수 밖에 없는, 臣民意識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3·1運動에 참가하는 視覺은 다소 달랐다. 王朝的 復古理念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종래의 衛正斥邪로 대표되던 排他的 復古主義에서는 그 意識

活動이 잘 나타나 있다. 이중 安炳瓚은 1909年 安重根의 公判에서 辯護士로서 무료로 변호한 인물이다.

55) 《志山集》 卷 15(志山集附錄중 年譜) 1919年 3月條 參照.
56) 同上.
57) 《記巴里憩書事》 參照.
58) 《俛宇先生年譜》 卷 6, 收錄 巴里長書 參照.
59) 同上.
60) 《俛宇文集》 卷 19, 1906年條 參照.
61) ① 《俛宇文集》 卷 19.
② 《俛宇先生年譜》 卷 2.
③ 《心山遺稿》 卷 4, 俛宇先生 神道碑銘 條.
④ 朴殷植 《韓國痛史》 서울新聞社, 1949. 第三篇 40, 反對黨之入獄 條 參照.

이 變化하고 있음이 長書에서 나타나고 있다. 郭鍾錫의 嶺南本이 湖西本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對內觀보다 採西觀이라고 하겠는데 여기에서 그는 당시 世界情勢를 維新의 時代라고 말하고 있다. 즉,

『今當大界維新之日 國之有亡在此一擧』[62]

라면서 나라없이 사는 것은 나라있는 죽음만 같지 못하다(與其無國而生 不若有國而死)고 韓國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儒林自體가 外交의 主體的 立場에 서서 세계열강에게 韓國民族의 念願을 대변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理論에 바탕을 두면서도 보다 큰 大義가 제시될 때 實踐과 결합될 수 있는 그의 合理的인 一面으로 理解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嶺南本에 참여하고 있는 儒林內部의 의식을 살펴보면 앞서 33人들의 獨立宣言書와의 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金昌淑과 在京儒林들은 宣言書를 肯定的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長書運動까지도 33人과 함께 展開할 것[63]을 提議하고 있다. 반면 金榥의 態度는 또 다름을 볼 수 있다. 그는 宣言書에 대해 평소 우리가 배운 바 와는 그 주지가 다르다.(吾輩平日所學 主旨差異)면서,

『設有事前相聞 未可遽與之同發名義云爾』[64]

라 하고 있다. 嶺南儒林中 두 主役의 意識도 이같이 時代潮流와 함께 달리하고 있다. 以上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長書內에 復合的인 儒林意識이 內在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것은 당시 儒林內의 對內·外的인 意識차이 및 갈등일 뿐만 아니라 3·1 運動에서 儒林의 보다 단결된 힘을 과시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저해요인으로도 지적되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당시 衛正斥邪思想에 바탕을 둔 儒林界가 3·1運動에 이르기까지 自體內의 矛盾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克服하는 과정을 뚜렷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2. 原本과 發送本

長書의 實務儒林들이 嶺南과 湖西本의 2個長書를 비교, 선택하는 과정에서,

『咸曰 俛宇先生所著 極其該明 無容更評』[65]

이라면서 嶺南本을 選擇하는 것은 文句문제 혹은 文章에서 合意한 것이라기 보다 長書가 지녀야 하는 시대적 요구, 즉 意識問題에서 合意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金昌淑이

62) 註 58 參照.
63) 註 36參照.
64) 《記巴里媾書事》 參照.
65) 金昌淑 《心山遺稿》 卷 5, 雜記, 躉翁 73年 回想記 上編, 韓國史料叢書 第 18, 國史編纂委員會, 1973.

湖西側의 實務者인 林敬鎬等에게 長書의 團一化를 위해,

『翁謂林曰 同一儒林 同一義理之事而各者投書 恐大有妨於 對外事體』[66]

라면서 이점에 대한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어떤가(與子另商其辦法可乎) 하고 제의하자 모두가 찬성(諸公咸曰善)[67]하고 있는 데서도 이 점이 나타난다. 湖西本이 지니고 있는 排他的인 性格을 당시의 시대조류에 맞추기에는 거리가 있었음이 長書實務者들에게 발견됐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보다는 嶺南本을 채택하는 것이 合理的이었다는 결론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당시 채택된 嶺南本의 原本과 巴里에 郵送한 發送本과는 적잖은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선 종래 그 원인이 究明되지 않은채 世間에 알려진 發送本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長書의 原本은 《俛宇先生年譜》[68] 初刊本 卷六 己未年 2月(陰)條에 수록된 순한문 1414字를 말하고 發送本은 《韓國獨立運動之血史》 pp. 143~144에 수록되어 있는 순한문 1422字를 말한다.

兩本을 비교, 검토해 보면, 내용중 文句를 바꾸었거나 첨삭된 곳은 20여군데에 달하고 있다. 이중 비교적 두드러지게 달라진 부분을 보면 表2와 같다.

表2에서 본 바와 같이 이같은 長書內容의 變化는 단순한 착오나 오식으로 빚어진 결과가 아니라 意圖的인 添削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金福漢等 一百三十七人이 첨가된 데서부터 原本은 嶺·湖의 合流를 통해 添削됐고 그것은 上海로

表 2)

原 本	發送本
『韓國儒林代表 郭鍾錫等』	『韓國儒林代表 郭鍾錫 金福漢等一百三十七人』
『巴 里』	『巴 黎』
『四海一轍』	『四海咸安』
『亦出於痛迫切 不能自已之意』	『實出於至痛迫切 不容自已之意』
『維持存保 四千有餘年』	『維持保全 四千有餘年』
『不失爲半島文明之區』	『不失爲半島文明之稱』
『不幸爾來 强隣外制 勒成盟約』	『不幸爾來 賊臣內訌 强鄰外侮 憑其武力 挾其私智脅君而鉗民, 勒成盟約』
『吾君吾國』	『吾國吾民』
『日 久』	『歷 月』
『未 見』	『不 見』
『自不乏絶』	『自不乏人』
『鍾錫等 山野廢朽 不及詳聞于外方事實而猶自爲舊國臣子』	『鍾錫等 山野廢朽 猶自爲舊國臣子』
『無抶於道塗之仆』	『無逮於宮壞之痛』

66) 同上.
67) 同上.
68) 《俛宇先生年譜》는 2冊으로 1956年(丙午)에 初刊됐고 그후 1961年(辛丑)에 重刊된 바 있다. 여기서는 2本을 비교하되 最初의 것인 初刊本을 주로 삼았다.

郵送될 때까지 계속되면서 發送本으로 바뀌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上海에서 國權恢復團의 金應燮等이 嶺南本을 英文으로 번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金昌淑은 이를 마다하고 자신이 휴대해 온 郭鍾錫의 長書를 尹顯振에게 위촉, 번역[69]시키고 있는데서도 이러한 變化를 엿볼 수 있다. 사실 郭鍾錫이 嶺南本을 준비, 확정하는데도 몇차례의 과정을 밟는다. 郭鍾錫의 命에 따라 金 槐도 草案한 바 있다[70]고 했고, 郭鍾錫은 또 張錫英에게도 草案을 의뢰[71]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郭鍾錫이 확정한 原本에다 添削된 發送本이 文句修整이라는 데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써 長書의 성격을 變化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 主要部分을 살펴보면, 發送本은 原本의

『吾君吾國曰 尙上天之監我 大運之好還 包羞忍恥 艱辛顚倒 于玆十年所矣』에서,

우리임금과 우리나라(吾君吾國) 대신에 우리나라와 우리민족(吾國吾民)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이는 舊王室에 대한 맹목적인 臣民意識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말함과 동시에 國家의 상징을 王室이나 임금이 아니라 民族이라는 實體로 보고자 했음을 엿보게 한다. 또 金昌淑이나 그와 뜻을 같이하는 新進儒林들이 유림규합의 기반을 전통사회에 두고 있었지만 낡은 시대를 회고하는 君臣의 입장이라기보다 시대적 타당성을 모색하고자 했던 一面으로 把握된다.

다음으로 原本의 불행히도 강한 이웃나라가 무리하게 맹약을 성립시켰다.(不幸爾來强鄰外制 勒成盟約)는 귀절을 發送本에서는 賊臣이 안에서 발호했다(不幸爾來 賊臣內訌……)는 것을 첨가시키고 있다. 國權喪失의 原因을 原本에서는 外國(日本)에게만 돌리려고 하고자 한 것을 發送本은 나라안에서 먼저 그 原因을 찾고자 한 반성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3·1運動이 勃發하자 金昌淑이 그의 동지들과 함께 나라가 망한 원인을 궁구한다면 이 儒敎가 먼저 망하자 나라도 따라서 망한 것이다.(苟究亡國之原 寔以儒敎先亡而 國亦隨之矣)[72]라면서 儒敎의 혁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반성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다음으로 原本의 郭鍾錫은 世界情勢를 잘 알지 못한다.(鍾錫等 山野廢朽 不及詳聞于外方事實)는 부분에서 『不及詳聞于外方事實』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郭鍾錫의 대외관에서라기 보다 金昌淑 내지 그와 대외관을 같이하는 유림들의 世界觀을 나타내고자

69) ① 金昌淑《心山遺稿》卷 5, 雜記, 豐翁 73年 回想記 上編, 韓國史料叢書 第 18, 國史編纂委員會, 1973.
『須將所携文字 譯以西文』 ②《高等警察要史》註 46 參照.
70)《記巴里憩書事》『長書文先生始命門人起草』. 嶺南本의 內容은《志山集》卷 15(志山集附錄중 年譜), 1919年 3月條에도 收錄되어 있다. 이 收錄本도 添削된 發送本과 同一하다.
71) ①《記巴里憩書事》『旣而自晦堂草一本來』.
張錫英(晦堂)의 草案은 現存하지 않는다.
②《心山遺稿》註 69의 ①『已屬張晦堂搆出矣』.
그러나《心山遺稿》에는 金 槐의 草案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72) 金昌淑《心山遺稿》卷 5, 雜記, 豐翁 73年 回想記 上編.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湖西本보다 嶺南本을 선택한 점과 관련지어 볼 때 이같은 유림내부의 진취적 성향은 豫見되고 있다.

이상으로 보아 앞서의 『吾國吾民』이나 『賤臣內訌』이 發送本에 삽입된 것이 儒林들의 對內觀에 대한 變化라고 한다면 『不及詳聞于外方事實』의 삭제는 對外觀의 變化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 學理的이고 理想的인 面보다는 현실적인 面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하겠다.

原本에 대한 첨삭배경은 이밖에도 郭鍾錫과 金昌淑과의 관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金昌淑은 장서준비 과정에서부터 草案內容에 대해 몇번이나 異見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 張錫英의 草案에 대해,

『將以英佛等各國語譯之 必以事實該明爲主 今見大著 文章雖極好而事實多疎畧處 請更加修潤如何』[73]

라고 한다. 즉 외국을 상대로 교섭하는 문장으로 英, 佛등 각국말로 번역해야 하는것인 만큼 반드시 사실을 해명하게 해야하는데 이 글은 문장은 극히 좋으나 사실은 소략한 것이 많다면서 다시 수정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청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그가 理想이나 學理보다는 현실과 실천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一面을 알 수 있다.

그는 다음으로 郭鍾錫을 만나 嶺南本을 전달받는 자리에서도,

『告曰 其在事實則極爲該明 然其在文章 恐不無冗長處 更加 刪正如何』[74]

라고 한다. 문장에 있어서 번잡하고 장황한 곳이 없지 않은 듯 하니 다시 더 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郭鍾錫이 이를 다시 고치고서야 겨우 수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상 점들만으로 그가 만족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후 스승의 사전허락도 없이 유림합류 및 長書선택등을 실행한 것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再修整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앞서 發送本에서 나타났듯이 그가 요구하는 문구수정은 儒林內部의 對內·外觀에 대한 의식차이이며 따라서 長書의 성격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性格變化를 시도한 주도적 인물은 金昌淑이라고 생각된다.

3·1運動을 앞둔 그의 對內·外觀을 通해서 살펴보면,

그는 적어도 甲午年(1894)때부터 신분계급의식에서 탈피하는 그의 부친의 영향을 받는다. 東學軍이 봉기하던 그때 16세였던 그는 부친으로부터 농부나 양반이나 신분에는 귀천이 없다는 평등사상을 교육 받는다. 그는 또 농부들과 함께 들에서 식사를 하면서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이지 신분의 귀함과 천함은 문제되지 않는다』[75]는

73) 同上.
74) 同上.
75) 同上. 『當問是老是少 不當問 何貴何賤也』.

父親의 교훈에 눈을 뜬다. 이때만 해도 그가 신분계급의식에서 완전히 탈피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후 1909年 동지들과 星州 憲兵分遣所에서의 訊問받는 자리에서 이러한 思想은 더욱 구체화 됨을 볼 수 있다. 당시 盧田彌之介 憲兵分遣所 所長과의 조사 문답을 보면,

『貴國皇帝 若許合邦 則公等將何以處之 翁曰我皇帝斷不因賣國逆臣之言而許之矣 藉使許之 是亂命也 亂命則吾不從也 彼曰不從皇命 是逆也 翁曰社稷爲重 君爲輕 不從亂命是 乃所以爲忠也』[76]

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임금이라는 存在보다 國家와 民族의 實體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의 實踐的인 유림의식을 보게 된다. 長書의 發送本에서 『吾君吾國』보다 『吾國吾民』이 내세워졌던 내면적 요구의 배경을 把握할 수 있는 것이다.

合併이 된 1910年, 그는 이제 儒林에서도 새로운 선비像을 구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13代나 물려받았던 書院을 근대식 사립학교로 改造한다. 당시 관계유림의 반발과 배척속에서도 그는 결코 조상을 잊거나 유림을 저버리지는 않는다.(是無傷也, 吾豈忘吾祖而 負儒林者哉)[77]면서

『與其順一時儒林之意而絶四方來學之士無寧養成 新進之英材 庶有待於異時之通儒也』[78]

라고 그 뜻을 관철시킨다. 그는 한때 유림의 뜻을 순종해서 사방에서 배우러오는 선비를 거절하기 보다는 새로 진출하는 영걸한 인재를 양성해서 딴 시대에 두루 통달하는 선비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림의 시대적 타당성이 요구된다는 그의 사상과 동지를 규합하고자 하는 그의 실천력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3·1運動 발발직전까지만 봐도 그는 1917年, 書院이나 祠堂건립을 격렬히 반대하고 그것은 浮華한 文章만 일삼는 짓[79]이라 했고 또 우리나라를 李氏朝鮮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大韓帝國으로 삼기를 주장[80]하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1運動에 直面하는 儒林들속에 長書의 준비 및 發送과정을 통해서 유림내 의식의 확대를 추구하는 一面을 간과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의식의 확대를 추구하고자 했던 新進儒林들도 長書內에서의 부분적인 性格變化를 시도한 단계를 넘어선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 유림사회와 구질서에 바탕을 두면서 전통 가치관과의 타협과 이해를 통해 長書運動을 전개하고자 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新進儒林들은 당시만해도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長書연명자들을 리드할만큼 그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고 儒林內에 가치관의

76) 註 72 參照.
77) 同上.
78) 同上.
79) 同上 卷 2, 上張晦堂, 答河毅卿(弘遠), 與安東龍尾道會所, 與晋州守正堂士林 條 參照.
80) 同上 卷 2, 與宋恭山 舜佐(浚弼) 條 參照.

차이와 의식의 같등이 심했음을 알 수 있다.

3. 長書의 構成

巴里長書는 上海에서 金昌淑이 우송한 發送本을 말한다. 그 內容을 보면 대체로 첫째, 獨立運動의 배경, 둘째, 獨立의 성취방법, 셋째, 韓國亡國의 배경, 넷째, 儒林의 對日觀 및 對外觀, 다섯째, 民族獨立의 當爲性等으로 요약된다고 하겠다. 本章에서는 이 다섯가지 점을 중심으로 長書의 성격을 把握하고자 했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33人의 독립선언서와 金允植의 독립청원서[81]와도 비교검 토해보고자 했다. 長書運動의 전개가 以上의 2個文書와 관련되고 있음은 앞서 논술한 바 있다. 또 金允植이 관료적 구한말 大臣이자 開化側 입장이라면 巴里長書는 斥邪側 입장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뿐 아니라 兩者가 獨立不願書라는 공통적인 배경을 안고 있어 3.1運動에 동시에 참여하는 성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독립운동의 배경을 보면 長書는 2가지 점을 들고 있다. 그 하나는 高宗崩去요, 다른 하나는 民族自決主義이다. 高宗崩去에 대해서는,

『一夜倉卒 寡君即世 擧國洶洶 痛徹穹壤 無地籲寃 乃於國葬之日 各敎各社個人男女 猶唱獨立之聲 奉慰吾君之靈』

이라 하여 高宗의 崩去로 인해 인심이 흉흉해지고 國葬날을 맞아 學校 및 종교단체 그리고 일반인등 남녀를 막론하고 독립만세를 불러 임금의 넋을 위로했다고 했다. 民族自決主義에 관해서는,

『自聞諸大位之設平和大會寡邦人民 咸踊躍奮激 以爲苟萬國而平和也』

라 하여 여러분이 평화회의를 연다는 말을 듣고 우리 겨레들은 기뻐서 踊躍했으며 이제야 여러 나라가 자유를 찾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알았다고 하고 있다. 이로 볼 때, 長書는 3·1運動 발발을 高宗崩去와 가장 깊게 관련 짓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평화회담의 기회를 노리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臣民思想을 代辯하는 一面임과 동시에 당시의 民族自決主義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長書는 民族自決主義원칙이 戰勝國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모든 식민지가 해방된다고 보고 있는데,

『中間用者之反覆欺詐有以惑諸大位之視聽也』

라 하여 중간에서 일을 보는 자가 속임수를 써서 여러분의 시청을 현혹시킬까 두렵다

81) 金允植의 請願書는《續陰晴史》下, 附錄 pp.607~608에 수록되어 있는 순한문 715字의 原本과《韓國獨立運動之血史》pp.145~146에 수록된 순한문 877字의 發送本等 2個本을 볼수 있다. 이의 變化는 金允植자신의 添削으로 인한것으로 보여지며 그 성격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는, 즉 日本이 파리회담의 결의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長書는 폴란드등이 해방됐는데 그들은 무슨 나라이며 우리는 무슨 나라인가(旣復聞波蘭諸國皆能獨立(中略)彼何國也 我何國也)하고 반문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선 金允植이 日本을 대상으로 獨立을 청원한 사실, 즉 당시 日本의 침략과 식민지정책을 올바르게 振握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과 相通한다고 보겠다.

둘째, 獨立의 성취방법을 살펴보면,

『鄙邦臣民 極知赤手空拳(中略)雖捕縛鞭戮 交加於前 徒手爭先』

이라 하여 우리 겨레들은 적수공권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때문에 비록 폭력이 닥쳐와도 앞을 다투어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공정한 판결을 의논해 달라고 했고 큰 빛의 광명이 치우침이 없고 큰 조화의 운행이 순조롭지 않음이 없게한다면 역시 도덕상으로도 일세의 다행스런 일이 될것이다.(益恢公判之議 使大明大之照 無不遍大化之行 無不順(中略) 亦道德之幸甚於一世)

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長書가 獨立의 爭取理念이 아니라 人道精神에 입각한 청원에 의존하고자 하는 면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3·1運動에서 長書事件과 직결시키는 獨立運動의 方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단절성을 엿보게 한다. 長書運動을 前後하여 관계되는 지방에서 兩班, 儒生 및 書堂관계자들의 獨立運動參加가 격렬히 전개[82]되지만 이 運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것도 이같은 請願의존적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長書事件 역시 관계유림의 鄕村세력들의 시위에서 탄로[83]되지만 대부분 독자적인 운동을 벌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째, 韓國亡國의 배경을 설명한 점인데 앞서 原本에서 삽입된 부분(賊臣內訌)에서 살펴보았듯이 日本의 侵略에서보다 그 원인을 나라안에서도 찾고자 했음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는 유림 스스로가 儒敎體制의 無力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네째, 對日觀과 對外觀을 보면,

對日觀에서는 日本을 영원한 敵으로 간주하는 반면 그밖의 對外觀은 우호적이라는 점

82) ① 金正明編《朝鮮獨立運動》Ⅰ 및 Ⅰ의 分冊, 原書房, 昭和 42, 6.
② 《韓國獨立運動史》2, 國史編纂委員會, 1966.
③ 《獨立運動史資料集》第 5, 6輯, 3·1運動史資料集,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72~1973.
④ 《韓國民族運動史料》3·1運動 篇, 其三, 國會圖書館編, 1979.
⑤ 李炳憲 編著《3·1運動秘史》時事時報社, 1959.
⑥ 《日帝侵略下 韓國 36年史》4, 5, 9, 國史編纂委員會, 1965~1969.
以上의 資料 및 著述等에서 보면 長書運動이 전개됐던 시기에 관계유림의 거주지방(居昌, 山淸, 星州등)의 양반, 유생, 서당관계자등 유교세력들의 獨立運動은 어느곳보다 치열하다. 그러나 長書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연결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당시 유림의 조직체계와 기록미비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83) 長書事件은 署名儒林인 宋浚弼의 子弟 宋晦根등 유교세력들이 주동한 4月 2日 星州시장의 시위에서 日帝側에 탄로된다.
「郭鍾錫等巴里長書 關聯者의 大邱地方法院判決文」《韓國獨立運動史》3, 國史編纂委員會 pp. 483~489 參照.

이다. 여기에서 列國에게 日本의 세계침략성을 아울러 경고하고 있는것은 주목된다고 하겠다. 鍾錫等은 차라리 머리를 부딪혀 죽을지언정 맹세코 日本의 노예는 되지 않을 것(鍾錫等 寧駢首就死 而誓不爲日本之僕隷)이라고 하는것과 이는 한국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까지도 안중에 없는 것(是不惟無韓於其手分實亦無萬國於心計也)이라는 대목이 그것이라 하겠다. 이는 33人의 독립선언서가 지니는 對日觀이나 막연히 추상적이요 촛점이 흐린 人道主義的[84]인 면과는 相反된다.

이 事件과 後에 연결되는 2차 유림단사건은 이러한 對日觀의 연장이라 하겠다. 또 長書의 근본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對外的 국제운동에서 對外觀이 확대됐다는 점은 종래의 유림의식에서 어느정도 벗어나고 있음을 말한다.

그들이 국제운동을 전개하자 면서 당초 목표를 세계열강에 두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속의 일원(我國固天下萬邦之一也)이라고 내세우고 있는것은 上疏의 형식이 아니라 유림 스스로가 主體가 되어 外交的 방법을 통해 국제정세에 대처하려는 노력이라 하겠다. 이점에 있어선 近代民族史上 유림이 하나의 단체를 표방하여 세계열강과 외교적 접촉을 시도하려했던 전통적 가치관의 轉換點으로 기록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民族獨立의 當爲性문제인데 전체흐름을 통해 볼 때 韓民族의 전통을 절대기준으로 삼고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初何待隣國之代治哉(中略)而韓民之自爲韓民 不惟其疆域風土之已定 抑亦得於天性者』

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당초 이웃나라의 통치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민족은 어디까지나 한민족임이 살고 있는 땅에서 이미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金允植의 청원서에 나타나는 民族獨立의 당위성을 보면,

『政在安民(中略) 日本併合韓國後十年間結果 非賜韓民以平和者也(中略) 極好方針(中略) 以公式承認韓國之獨立』[85]

라 하고 있다. 정치는 백성을 편안히 함에 목적이 있는데 日本이 韓國을 併合한후 10年동안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巴里長書는 33人의 獨立宣言書가 日本의 질서안에서 民族主義를 論하고 있는 것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金允植의 청원서가 日本통치를 기준으로 獨立을 성취하고자 한 점과도 뚜렷이 구별된다. 特히 청원서가 자기상실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음에 비해 巴里長書는 저항적 자기수호를 드러내고자 하고 있다. 金允植의 청원서가 日

84) 金成植《日帝下韓國學生獨立運動史》, 正音社, 1981, p.59 參照.
85) 註 81 參照.

本통치 그 자체를 현실로 보는 면이 강한 반면 巴里長書는 전통적 자주성 그 자체를 현실로 보는 면이 강함을 알 수 있다.

以上으로 巴里長書의 구성을 중심으로 그 性格把握에 接近해보고자 했다. 여기에서 長書가 독립의 성취방법을 世界列國에만 의존한 채 對外觀 역시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反帝國的 民族主義나 배타적 자주성에 집착하여 시대착오적인 고집에만 급급한것만은 아니라는 사실과 長書를 통해 시대적 타당성의 안목을 점차 넓혀가고자 하는 전진성을 발견하게 된다.

Ⅳ. 結　　論

지금까지 近代民族史라는 흐름속에서 3·1運動에 參加하는 儒敎界의 諸問題를 儒林과 巴里長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儒敎界는 민중적 기반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3·1運動발발까지 지도력의 약화, 비조직성, 그리고 정치의식의 전근대요인 등으로 인해 그 조직체계와 理念을 집약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儒敎界는 獨立不願書를 계기로 잠재세력이 형성되며 高宗崩去와 3·1運動발발이후에 그 추진세력이 등장함을 볼 수 있다. 3·1運動이 본격화되는 후기단계로 접어들자 유림들, 특히 嶺南 및 湖西儒林들이 규합되면서 이중 新進세력들은 長書運動을 전개하면서 意識의 확대를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求心點이 없는 복합적인 內在意識이 합류함으로써 3·1運動에서 산발적이고 소극적인 참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長書運動은 또 儒林社會의 學理主義와 實踐的 新進勢力間의 타협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3·1運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만한 세력이 체계적으로 형성된 단계는 아니었다

이같은 복합적인 內在意識을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첫째, 忠君愛國思想의 王朝 회고적인 입장이 밑바탕을 깔고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둘째, 王朝理念에 바탕을 둔 막연한 採西觀의 단계, 세째, 儒林社會에 기저를 두면서 시대적 타당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신진세력의 성장, 그리고 네째, 이러한 復合的인 요인이 결합되어 비밀결사 조직과 연결된 2차 유림단사건의 잉태라고 하겠다. 이러한 복합적인 의식은 對內的으로 본다면 儒敎界의 단결력을 저해하는 요인일뿐만 아니라 對外的으로는 당시 국제사회를 完全히 把握하는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배경임을 뜻한다. 따라서 3·1運動에 있어서 儒林界는 長書運動이후에 직결되는 獨立運動의 方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으며 長書運動이 바로 近代的인 獨立理念으로 성장될 수 없었다고 보아진다.

여기에서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巴里長書의 確定과정과 그 이후 原本과 發送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유림사회내에서 시대적 변전에 적응하

는 의식변화가 싹트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를 소화하면서 義兵戰에서 볼 수 있었던 배타적 자주성과 왕조복고적 이념의 전통적 입장을 보다 근대지향적인 시각으로 적응하고 있었던 일면을 과소평가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유교계를 직접 리드할만한 세력기반을 지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전통질서가 自滅 혹은 崩壞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3·1運動을 계기로 유교사회의 절대가치관을 긍정적으로 질적변화 시키고자하는 일면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參 考 文 獻

資 料

1. 《高等警察要史》 高大民族文化研究所, 複刊本, 1967.
2. 《國譯心山遺稿》 成均館大學校, 大同文化研究院, 1979.
3. 《騎驢隨筆》 韓國史料叢書 第 2, 國史編纂委員會, 1971.
4. 《記巴里懇書事》 3·1運動 50周年紀念論集內 公開 (許善道씨 論文).
5. 金相德 《朝鮮獨立運動史》 朝鮮出版文化株式會社, 1946.
6.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Ⅰ, 및 Ⅰ의 分冊, 源書房, 昭和 42.
7. 《獨立運動史》 2,3卷,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71版, 및 1983版.
8. 《獨立運動史資料集》 5, 6輯, 獨立運動史編纂委員, 1972~1973.
9. 《俛宇集》 《俛宇先生年譜》 1956, 6, 慶南 居昌郡 加祚面 源泉 茶川書堂, 俛宇先生年譜發刊所.(慶北大 도서관소장)
10. 《梅泉野錄》 韓國史料叢書 第 1, 國民編纂委員會, 1955.
11. 《梅泉野錄》 李章熙譯, 서울, 大洋書籍, 1972.
12. 卞志燮 《慶南獨立運動小史》 上, 三協印刷社, 1966.
13. 《續陰晴史》 上·下, 韓國史料叢書 第 11, 國史編纂委員會, 1960.
14. 《心山遺稿》 韓國史料叢書 第 18, 國史編纂委員會, 1973.
15. 《陰晴史》 韓國史料叢書 第 6, 國史編纂委員會, 1971.
16. 李炳憲 《3.1運動秘史》 時事時報社, 1959.
17. 《日帝侵略下韓國 36年史》 4, 5, 9, 國史編纂委員會, 1965~1969.
18. 《朝鮮總督府官報》 1910~1920, 朝鮮總督府.
19. 《志山集》 慶南 金海郡 長有面 德亭里 月軒書院, 李雨燮氏 소장.
20. 《韓國獨立運動史》 2, 3, 國史編纂委員會, 1966~1967.
21. 《韓國獨立運動史資料》 Ⅲ~Ⅵ, 國史編纂委員會, 1973~1983.
22. 《韓國民族運動史料》 3.1運動篇 其三, 國會圖書舘, 1979.
23. 《韓國獨立運動之血史》 朴殷植, 서울신문사 출판국, 1946.
24. 《韓國獨立運動史》 愛國同志援護會, 1956.
25. 《韓國獨立史》 上, 統一問題研究會, 1965.
26. 《韓國痛史》 朴殷植, 서울신문사, 1949.

論 · 著

27. 姜萬吉《獨立運動의 歷史的性格》分斷時代의 歷史認識, 創批社, 1978.
28. 姜在彦 著, 鄭昌烈 譯《韓國의 開化思想》比峰出版社, 1981.
29. 琴章泰《義理思想과 선비精神》韓國思想의 深層研究, 宇石, 1982.
30. 金成植《日帝下韓國學生獨立運動史》正音社, 1981.
31. 金泳謨《3.1運動의 社會階層分析》亞細亞研究, 1969, 3, 12-1.
32. 金龍基《3.1運動과 巴里長書事件에 對하여》釜山大學校文理大學報 2輯, 1958.
33. 金鎭鳳《3.1運動의 展開》韓國史學 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34. 류청하《3.1運動의 歷史的性格》韓國近代民族運動史, 돌베개, 1980.
35. 朴成壽《3.1運動에 있어서 暴力과 非暴力》3.1運動 50周年 紀念論集, 東亞日報社, 1969.
36. 裵宗鎬《韓國儒學史》延世大出版部, 1978.
37. 裵宗鎬《韓國儒學의 課題와 展開》汎學社, 1980.
38. 申奭鎬《3.1運動의 展開》3.1運動 50周年 紀念論集, 東亞日報社, 1969.
39. 愼鏞廈《3.1運動의 社會史》韓國學報 30, 31, 一志社, 1983.
40. 安秉直《3.1運動에 參加한 社會階層과 그 思想》歷史學報 41輯. 1969.
41. 李光麟《韓國開化思想研究》一潮閣, 1979.
42. 李佑成《心山의 儒學思想과 行動主義》成均, 1934.
43. 李炫熙《大韓民國臨政府史》集文堂, 1982.
44. 張乙炳《心山의 民族主義 理念》成均, 1934.
45. 趙芝薰《韓國民族運動史》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4.
46. 崔昌圭《3.1運動以後韓國民族主義의 새로운 展開》나라사랑, 외솔회, 16집, 1973.
47. 崔昌圭《近代韓國政治思想史》一潮閣, 1972.
48. 千寬宇《民衆運動으로 본 3.1運動》3.1運動 50周年 紀念論集, 東亞日報社, 1969.
49. 洪淳昶《韓末의 民族思想》探求堂, 1982.
50. 洪淳昶《衛正斥邪論의 性格과 그 系譜》石溪 趙仁濟博士回甲紀念論叢, 1977.
51. 許善道《3.1運動과 儒敎界》3.1運動 50周年 紀念論集, 東亞日報社, 1969.
52. 玄相允《朝鮮儒學史》玄音社, 1982.
53. C.W 켄달著, 申福龍 譯《韓國獨立動의 眞相》The Truth about Korea, 探求堂, 1975.
54. F.A 멕켄지 著, 申福龍 譯註《大韓帝國의 悲劇》The Tragedy of Korea, 探求堂, 1981.
55. F.A 멕켄지 著, 李光麟 譯《韓國의 獨立運動》Koreaos Fight For Freedom, 1979.
56. F. 볼드윈《윌슨, 民族自決主義, 三·一運動》3.1運動 50周年 紀念論集, 東亞日報社, 1969
57. 加藤宇多子《3.1運動について》歷史學研究 33, 歷史學研究會, 東京, 1964.
58. 宮田節子《3.1運動について》朝鮮近代史科研究 集成 3, 朝鮮史科研究會, 東京, 1960.